

# 내년 10월 '포항 AI전용데이터센터' 국내 첫 상업운전 개시

광명일반산단에 40MW 규모 착공 전력사용효율 평균 1.25 '최상위' 2단계 사업 성공 시 300MW 규모로

경북 포항에 구축되고 있는 AI전용데이터센터가 내년 10월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단 10만㎡ 부지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40MW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전력확보는 물론 건축허가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와 행정절차가 지난 2월 완료됐고, 5500억원에 이르는 금융조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북도는 이달 착공해서 내년 9월 준공, 10월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다른 상업 AI데이터센터보다 평균 2~3년 빠른 것이다.

이처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해 프로젝트 주관사는 ▲고효율 설계와 운영비 절감 노력 ▲전력 기반과 토지 비용 등 경쟁력 있는 입지 ▲리드 투자자 확보 ▲정책금융 유치 등 지방정부의 패키지 정책지원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 구축되고 있는 AI전용데이터센터 조감도.

이 데이터센터는 전력사용효율(PUE) 1.0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음이 평균 1.25로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일반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는 약 1.56 수준이다.

또 입지가 비수도권인데다 중대중 구조 설계에 비해 하중 설계와 보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층구조여서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앞으로 전기요금차등제가 도입되면 운영비(수도권 대비 전기료 20% 이상 절감)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투자에서는 포레스트파트너스(Forest Partners)가 12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하는 리드투자자로 참여해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경북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부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을 안내해 사업자는 이를 전제로 사업구도를 설계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과 위탁기관인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IRR)은 집중 컨설팅을 지원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적합한 투자구조를 설계했다.

이에 따라 1단계 40MW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네오AI클라우드가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2단계 사업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경북도는 260MW 규모의 전력영향평가를 이미 한국전력에 접수했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정책금융계획을 세우고 있다. 2단계까지 성공하면 이 센터는 300MW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포항 A 데이터센터는 포항의 산업다각화는 물론, 전력자립도가 228%에 달하는 경북의 동해안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찾는 AI산업 벨트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요금차등제와 입지여건 확충 그리고 정책금융 연결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마중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nong@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산청군

#### 양파 수확철 맞이 인력 지원

산청군이 양파 수확철을 맞아 관내 농가에 대규모 인력을 지원했다.

군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양파재배 농가 24곳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청 공무원과 농협, 산청교육지원청 직원 등 350여 명이 수확 작업에 투입됐다.

양파는 기계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밭작물로서, 수확과정에서 뽑기·줄기 절단·건조·선별까지 대부분 사람 손을 거쳐야 해 영농성수기마다 인력 확보가 농가의 가장 큰 과제다. 산청군은 이번 일손돕기에서 이 같은 수작업 공정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함양군

#### 집배원 활용 '안부살핌 서비스'

함양군이 우체국 집배원의 정기 방문을 활용해 고령 위기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군은 '2026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을 이어간 것이다. 군은 올해 3월 함양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체계를 갖췄다.

사업 골자는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를 월 2~3회 찾아가 건강 상태와 생활 실태를 점검표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 고용우수기업 15곳 선정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기업 15곳을 '2026년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모별 선정 업체는 ▲중업원 300인 이상(대양전기공업, 카이엔, 워크재활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술병원) ▲중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디알모빌리티, 코웰메디, 로카디, 한선엔지니어링) ▲중업원 100인 미만(뉴라이즌,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대봉기연, 아토무역, 저스트컴퍼니, 엔츠, 로프캠프) 등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사업' 추진 고령농·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전문 마을 MD가 전 과정 지원

영주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유통취약농가 지원을 위해 디지털 유통 기반 확대에 나섰다.

영주시는 '차세대 유통리더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영주장남 소평물 내 '마을 MD 기획관'을 운영해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판매 경험이 부족한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 등 유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마을 MD(Merchandise-유통도우미)가 상품 발굴부터 기획, 홍보,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농산물 생산에는 강점이 있지만 온라인 유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들이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사업을 통해 온라인 소평물 입점 지원은 물론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포장재 개발, 상품화 전략 수립, 온라인 홍보와 프로모션 등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국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마을 MD가 농가와 긴밀하게 협력해 상품 발굴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유통 모델로,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가의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마을 MD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우수 농특산물 발굴을 확대해 기획관 참여 품목을 늘리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 경쟁력 강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초여름 녹음 즐기러 경북으로 오세요'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광지 3곳 소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 6월 편으로 초여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경북의 초록빛 관광지 3곳을 선정해 소개했다.

공사가 추천한 관광지는 경주 천년숲정원, 영천 생태공원 메타세쿼이아길, 청도 청도읍성이다. 6월은 짙은 녹음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숲길과 정원을 따라 걸으며 자연 속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다.

경주 천년숲정원은 경북 제1호 지방정원으로 남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오랜 기간 산림 연구를 위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곳으로, 울창한 숲과 실개천, 외나무다리, 거울숲 등이 대표적인 볼거리다.

영천 생태공원 메타세쿼이아길은 높게 자란 메타세쿼이아가 산책로를 따라 늘어서 있어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주변 생태공원에는 다양한 수



경주 천년숲정원 산책로.

생식물과 들꽃이 어우러져 산책의 즐거움을 더한다.

청도 청도읍성은 성곽과 넓은 잔디밭이 어우러진 풍경이 특징이다. 성벽을 따라 걸으며 청도의 농촌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인근 연지에는 초록빛 연잎이 가득 펼쳐져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6월은 자연이 가장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라며 "경북의 숲과 성곽길을 걸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김진곤 기자

## 전주단오축제서 진주 '실크등 터널' 선보

전주시-진주시 문화도시 상생협력

전북 전주시와 경남 진주시가 문화도시 간 상생 협력의 첫 결실로 전주단오축제에서 '실크등 터널'을 선보인다.

전주시는 오는 19~20일 전주덕진공원에서 열리는 '2026 전주단오' 기간 진주시가 제공한 실크등 1000점을 활용한 '진주 실크등 터널'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교류사업의 하나로, 전주의 한지와 진주의 실크 등 양 도시의 대표 문화자원을 상호 홍보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는 지난 2월 문화 교류를 제안



전주단오축제 '실크등 터널'

한 이후 실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3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왔다.

실크등 터널은 전주덕진공원 내에 설치되며, 관람객들이 빛의 터널 속을 걷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될 예정이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 경북도, 中 베이징·내륙 기업과 협력 확대

'산업협력 포럼·경북 투자 설명회'

경북도가 지난 10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오는 17일까지 베이징 권역과 내륙의 칭다오, 베이징, 청두, 충칭을 순회하는 한중 산업협력 포럼 및 경북 투자 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투자유치 확대에 나선다.

첫 일정으로 지난 10일 방문한 칭다오에서는 현지 기업인과 투자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과 투자 상담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동행한 계양정밀(경북 미래차 선도기업), 세아메카닉스(전기차 및 자동차·ESS 배터리 부품·TV벽걸이 및 구동메카니즘), 위드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용 포고핀 및 소켓 개발·제조) 등 첨단기술 기업들이 참석해 현지 공급망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칭다오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는 경북도와 현지 기업 및 전문 로펌 등 3개 기관이 투자유치 협력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 자리에는 관바오차이 칭다오시 무역촉진회 부회장, 허샤오엔 칭다오시 무역촉진회 처장, 웨빈 사이훙미래 총재 등 중국 현지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석했다.

13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에서는 중국 최대 글로벌 로펌 등 6개 기관들과 연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경북교육청

#### 전물 학도의용군 행사 성료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일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6·25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물 학도의용군 추념식과 호국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작은 영웅의 용기에 피어난 오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김준한 기자